

8월말까지...막바지 무더위 주의하세요

폭염 한풀 꺾였지만 더위 지속 전남 온열질환 189명 3명 숨져 고령자 낮시간 야외활동 자제 추석전 벌초 벌쏘임도 요주의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광복절인 15일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고 다음주(19~25일)는 30~33도로 분포해 이번 주에 비해 2도 가량 덜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남은 8월 한 달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더위는 여전히 걱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고령화 지수가 높은데다 전남은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라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광주·전남에서는 43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이중 6명이 숨졌다.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시원했던 7월과 늦게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방심한 탓에, 8월 초순에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폭염이 약간 누그러지

자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논밭에 나가 일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온열환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질병관리 본부에 따르면 여름 더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광주·전남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광주 30명·전남 159명(사망3명)으로 총 189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577명(사망 1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지자체들은 낮 시간대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노인들이 농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현장 홍보활동과 함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노인들은 추석이 가까워지면 습관적으로 논밭에 나가는 경향이 있는 만큼 마을단위에서의 대책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벌의 활

동이 왕성해져 벌 쏘임 사고가 늘어나고, 벌이 시위한 곳을 찾아 건물 안까지 들어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6년 여수에서 벌초작업을 하던 50대가 벌에 쏘여 사망하는 등 추석 전 벌초객이나 성묘객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벌쏘임 환자는 연간 1만 4000여 건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8~9월에 집중돼 있다. 기상전문가와 내과 전문의들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도 한낮에는 에어컨 등 냉방장치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폭염이 끝물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 단계는 아니다. 농작업은 삼가되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낮시간대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2	달뜨기	20:02
해질	19:21	달지기	06:11

후덥지근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 오다 낮부터 그치겠다.

광주	비운뒤 갬	25/32	보성	구름맑음	23/32
목포	맑음	25/30	순천	흐림	25/32
여수	구름맑음	26/32	영광	비운뒤 갬	25/31
나주	비운뒤 갬	24/31	진도	맑음	24/29
완도	맑음	25/30	전주	비운뒤 갬	25/31
구례	비운뒤 갬	25/32	군산	비운뒤 갬	25/30
강진	구름맑음	25/30	남원	비운뒤 갬	24/31
해남	구름맑음	23/30	흑산도	맑음	23/28
장성	비운뒤 갬	24/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1.0~2.5	남서~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서~북서	1.5~2.5	서~북서	1.0~2.0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매우높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15	03:02
	20:12	14:52
여수	03:38	09:31
	15:31	22:06

◇주간 날씨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	☁	☀	☁	☁	☁	☁
24/32	23/33	23/33	23/32	23/31	23/31	23/31

50만 이하 도시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 면제 개정안 동물단체 반발...철회 촉구

'50만 이하 도시에서는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면제한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내용이 동물단체의 반발을 사고있다. 15일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52개 동물보호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동물복지를 후퇴시키는 50만명 이하 도시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면제하려는 이만희 약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문화 차이를 감안,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2018년 기준 유기동물이 12만 마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50만 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약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 등록률이 지난 5년간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



어린이 심폐소생술 교육. 물놀이철을 맞아 광주북부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지난 14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있다.

광주경찰·광주시 '밝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손잡았다

4년간 161억 투입 인프라 구축 수영대회 CC-TV 320대 활용

광주경찰이 광주시와 손잡고 '밝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장하연 광주지방경찰청장은 15일 "세계수영대회 안전을 지킨 320여 대의 CC-TV를 시민 안전을 위해 투입·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는 4년(2019~2022년)간 총사업비 161억을 투입해 스마트 안전도시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경찰청은 수영대회기간 사용된 322대의 CC-TV를 이 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기간 사용된 CC-TV 322대를 포함한 972대를 취약지역 및 시민 요청장소 등에 설치·제공할 방침이다. 광주시내 CC-TV는 2018년 기준 5081대가 설치돼 있으며, 보안등(가로등)은 9만 5338대가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러한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5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가 2016년 대비 11.2%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밝은 밤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기존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조도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심공원(385개소) 범죄가 2016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광주시는 방범용 CCTV 기동에 장착되는 비상벨도 올해 870개소(8억원) 설치하고, 위급한 상황에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CCTV통합관제센터와 통화가 가능한 쌍방향 음성통신 체계를 마련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9월 독서의 달 앞두고 시립도서관 다채로운 행사

9월 독서의 달을 앞두고 광주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도서관)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 무등도서관은 스테디셀러 목록 배포(1일부터), 책갈피 만들기 체험(7일 오전), 샌드아트 공연 및 체험(7일 오후) 등을 마련했다. 샌드아트 공연은 50개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작가 웰 실버스타인의 '아침없이 주는 나무'를 소재로 진행했다. 사직도서관은 주제가 있는 테마도서관 '도서관 여행하는 법'을 시작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추천도서 전시, 백희나 작가의 '달 사베트' 원화전시를 기획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전래놀이 프로그램은 7일과 28일 오전 진행된다. 이밖에 독서명인 액자 만들기, 추천도서 목록 배부 행사도 준비했다. 25일 오전 도서관 북카페에서는 인문작가 안상현씨의 철학강의가 열린다. 산수도서관은 초등생 대상 독서퀴즈(3일), 성인 대상 가족공예 만들기 체험(18일), 초등생을 위한 그림책 만들기 과정 살펴보기(21일) 행사 등을 마련했다. 세밀화 시리츠 '바다' 원화전도 준비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북구, '재난안전 주민행동요령' 책자 제작 배부

광주시 북구가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발행한다. 북구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주민행동요령' 책자 2500부를 제작해 이달내에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행동요령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기타 안전관리 등 4개 재난·안전 분야를 총 17개의 재난안전 유형으로 구분했다. 각 유형별 행동요령과 신고방법, 신고 전화번호 등이 담겨있다. 갑작스러운 이상 기후 현상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재난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기상특보 발표기준을 비롯해 해빙기와 여름·겨울철 야외활동 주의 사항,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 안전수칙도 수록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유아교육과	7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 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 형 일: 2019. 8. 20(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